

과외와 교육개혁

서울 강남 일대 부유층 자녀의 불법 고액과외가 연일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그 문제점과 대책이 심층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를 유아무야(無常無我)의 인생관에 입각, 철저한 검약과 위생정신이 반영되어 있는 불교의 다비(茶毘)의식, 옛부터 승가에 정착된 전통적인 불교의 화장문화를 널리 알려야 할 때다. 화장장려 캠페인에 불교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다. (불교 영탑·납골묘 현황, 본지 182호 11면 참조)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서울 강남 일대 부유층 자녀의 불법 고액과외가 연일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그 문제점과 대책이 심층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를 유아무야(無常無我)의 인생관에 입각, 철저한 검약과 위생정신이 반영되어 있는 불교의 다비(茶毘)의식, 옛부터 승가에 정착된 전통적인 불교의 화장문화를 널리 알려야 할 때다. 화장장려 캠페인에 불교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다. (불교 영탑·납골묘 현황, 본지 182호 11면 참조)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火葬으로 금수강산 지키자”

전국토의 1%, 서울 면적의 1.6배나 차지하고 있는 묘지. 해마다 여의도 면적의 1.2배가 묘지로 조성돼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SK그룹 최중현 회장의 화장장 기증을 계기로 묘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사회단체들과 함께 화장 장려운동을 적극 펴나가기로 했다. 시는 오는 15일경 36개 시민단

서울시·시민단체 ‘화장유언 남기기’ 캠페인
故 최중현 회장 화장...의식 변화 계기
교계 납골당·영탑공원 등 장묘제 개선 앞장

체모임인 생활개혁실천국민협의회(의장 이세중변호사)와 함께 ‘화장을 유언으로 남기기 운동’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이

달초 장묘문화 개선 공청회와 화장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를 벌이고 시 묘지시설 설치관리조례를 전면개정할 방침이다.

시와 시민단체들은 화장 장려를 위해서는 지도층이 솔선수범이 중요하다고 보고 김대중 대통령과 고건 시장을 비롯한 각계 지도층 인사들에게 ‘후손에 금수강산을 물려주기 위해 화장에 기꺼이 동참한다’는 유언장 작성을 권유, 이를 2부 만들어 본인과 사회단체가 각각 보관토록 할 방침이다. 또 화장장할 서명운동 등을 벌여나가는 한편 SK와 LG측이 추진하는 화장시설설치계획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화장장려 운동은 지난 8월26일 별세한 최중현 SK그룹 회장이 재발충수로서는 이례적으로 자신을 화장하고 화장

장을 지어 사회에 기증하라는 유언을 남김으로써 시작됐다. 특히 지난달 수해로 유실되거나 파손된 분묘 7백63기중 52.4%인 4백기가 매장대신 화장을 택한 것도 화장제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한국형 가족묘·평장묘 등을 시민들에게 권장해 왔는데 반응이 대단히 좋았다”며 “화장문화 확산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 한국형 가족묘 1백44기를 시험조성, 평균 9대1의 높은 경쟁률로 일반에 분양한 바

있다. 한국형 가족묘는 전통적인 봉분형 분묘형태를 가진 납골묘로 유골을 최대 24위까지 안치할 수 있다.

“무상 무아(無常無我)의 인생관에 입각, 철저한 검약과 위생정신이 반영되어 있는 불교의 다비(茶毘)의식, 옛부터 승가에 정착된 전통적인 불교의 화장문화를 널리 알려야 할 때다. 화장장려 캠페인에 불교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다. (불교 영탑·납골묘 현황, 본지 182호 11면 참조)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불교의 눈 “육신은 4대로 흩어지니...”

“4대(大)를 받은 사람은 목숨을 마치면 지대(地大)는 땅으로 돌아가고 수대(水大)는 물로 돌아가고 화대(火大)는 불로 돌아가고 풍대(風大)는 바람으로 돌아가고 공대(空大)는 공(空)으로 돌아간다. 어리석은 이나 지혜 있는 이나 목숨을 마치면 모두 무너지고 부수져 단멸법이 되고 만다.”(아함경) 국토를 잠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매장문화는 죽어서 4대로 다시 돌아갈 육신에 대한 애착에서 비롯되었다. 불교의 다비의식에서는 마지막에 영혼이 원래의 모습

으로 돌아갈 것을 발원하는 ‘환귀본토진언(還歸本土眞言)’을 의미한다. 따라서 “형상이 무너지고 정신만은 없어지지 않는 것”(불설보요경)을 죽음으로 보는 불교의 화장제도는 묘지문제를 해결하는 필요충분한 대안이 아닐 수 없다. 성공적으로 영탑공원을 운영중인 한마음선원 금강저 단멸법이 되고 만다.”(아함경) 국토를 잠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매장문화는 죽어서 4대로 다시 돌아갈 육신에 대한 애착에서 비롯되었다. 불교의 다비의식에서는 마지막에 영혼이 원래의 모습



△최근 ‘火葬’이 새 장례문화로 각광받고 있다. 사진은 한마음선원 금강저 단멸공원을 찾은 불자가족의 모습.

족집게 과외... 빛나간 자식사랑

서울대총장등 지도층 부도덕성 드러내
학벌지상주의 근절등 전인교육 절실

〈부모은중경〉은 부모의 은혜 가운데 아홉번째는 ‘자식을 위해 지옥에 떨어질 각오로 악업을 마다 않는 것(爲造惡業)’이라고 실었다. 그렇다면 법을 어기며 자식을 과외시키는 것도 여기에 해당될까.

‘족집게 과외 과외’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우리 교육 풍토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가’ 하는 통탄의 목소리가 높다.

교수, 세무사, 대기업체 중역, 공무원, 은퇴간부 등 사회 지도층의 엄청난 과외비가 서민층 부모와 자녀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한편 담임 교사들이 돈을 받고 과외학생 ‘중간 모진책’ 노릇을 한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스승의 위상도 흔들린다. 우려까지 낳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교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서울대학교의 총장까지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시민들은 허탈함에 빠졌다.

수사가 확대되면서 부유층 인사들의 비열한 자식사랑의 실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前 한국권력협회장 전숙희씨는 손녀에게 고액과외를 시킨

사실에 대해 때늦은 참회의 편지를 강남경찰서에 보냈다. 전씨는 편지에서 “잘못된 교육현실을 바로잡아야 하는 나같은 사람까지 제 자식만을 생각하다니 후회스럽고 부끄럽다”고 고백했다. 끝간데 모르는 거액 과외 파문. 시험 성적이 학생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인

데다 학벌위주의 사회가 오늘의 병리현상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은 “실력위주의 사회풍토와 자능을 살려주는 전인교육, 사회 지도층의 각성이 이뤄지지 않는 한 ‘제2의 건국’은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교육부는 8월31일 앞으로 자녀에게 불법 고액과외를 시킨 학부모는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국제성에 통보해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예·복습 열심히 하면 과외 필요없어요”

고졸검정 최연소 합격 김금임 양



“학원수업 열심히 듣고, 예습 복습을 하부도 빠짐없이 하면 과외받을 필요 없어요”
98학년도 제2회 고교 졸업자격검정고시 전국 최연소 합격자인 김금임(13)양. 지난 4월 고입 과정에서 최연소 합격의 영광을 누린 그녀는 “모든 것이 부처님과 보살님 준 보린님 덕분”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5세때 부모님을 여의고 부

산 사하구 신원동 소재 미타사에서 자란 김금임은 초등학교 졸업후 건강이 좋지 않아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 과정을 준비해 왔던 것.
“부처님 같은 자비심을 지닌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 많은 아이들에게 공부의 재미를 알려주고 싶다”는 김금임은 요즘 컴퓨터를 열심히 배우면서 2년쯤 뒤에 대학 입학 준비할 계획이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국민 54% “뇌물준적있다” 공무원 10% “부패가담경험”

연성진 박사 ‘공무원 부정부패’ 설문

우리나라 국민 3명중 1명은 97년 8월 이전 1년동안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험이 있고 2명중 1명(54.1%)은 일생동안 한번 이상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식통계로 나타난 1%보다 10배가 많은 전체 공무원의 10%가 부정부패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24~29일 열린 제12차 세계범죄학대회에서 형사정책연구원 연성진박사는 지난해 8월 현재 일반인과 공무원 2천2백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 및 대책〉이라는 논문을 통해 일반인 9백70명중 3백49명(36%)이 97년8월 이전 1년간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적이 있다고 발표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종사자는 전체의 48%가 뇌물을 건네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유흥업 46%, 건설분야37%, 판매업 33% 일반직장인과 요식업 분야는 각각 28%와 27%가 뇌물을 제공했다.

한보로부터 기아사태까지 IMF구제금융을 부른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뿌리인 뇌물. <사제경>의 ‘법답게 재물을 구하여 법답지 않은 것은 따르지 않는 바른 생활(正命)’인’이 절실한 때다. 김재경 기자



이계홍 (서울신문 논설위원)

“
학력 만능사회
돈으로 성적사려는
부모들의 졸부근성
이제 뿌리뽑아야
”

변화나 개혁의 주체로서 또는 공동체로서의 책임의식이 없다면. 언제나 수구 보수주의 반열에서 그동안 가졌던 특혜를 온존, 유지하기 위해 아이를 일류대에 보내려고 발버둥을 치고, 권세로 재산도 독점하려고 한다. 고액 불법과외도 이런 병든 문화의 표현이 아니겠는가.

그런 부모의 자식들이 불법과외를 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벌을 준다는 것은 부모의 잘못을 아이들에게 덧씌우는, 또 다른 이름의 단죄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아이들을 감싸고 보호하고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올바른 교육이다. 반면 그 부모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죄를 물어야 한다. 그것이 사회정의의 구현이다.

석용산 스님 출판(수필집,시선집) 기념대법회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수행자는 어떻게 서야 하는가!

모시는 글

회주 석용산 큰스님께서 3년 고행을 마치고 포교활동을 재개하시게 되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자가 인생의 승리자라 하였습니다. 기도 기간중 보여 주셨던 여법하신 스님의 인욕수행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수행자들에게 영원한 귀감이 되리라는 것을 믿기에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실직자 가정 자녀를 위한 장학금 전달을 하오니,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부산 공덕원 주지 석효선 합장
대구 공덕원 주지 석지광 합장

부산

첫째날 <강연 및 장학금 전달 그리고 찬불가>

- 일시 : 1998년 9월 17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제문화센터(국제신문 4층) 대강당

둘째, 셋째날<강연회>

- 일시 : 1998년 9월 18일(금), 19일(토) 오후 2시(이틀간)
- 장소 : 부산공덕원 대법당(옹호동 부산은행 5층)
- 연락처 : (051)625-2253, 2254 / FAX : (051)623-3946

대구

- 일시 : 1998년 10월 16일(금) 오전 11시
- 장소 : 대구공덕원 대법당(만촌동 2군 사령부 후문)
- 연락처 : (053)741-0077, 0088 / FAX : (053)741-0066

- 주최 : 불교교육회관 공덕원, 사회복지법인 공덕원
- 후원 : 부산불교신도회, 불교부산방송, 새정치국민회의 부산·경남연동회, 대한불교부산지구청년회, 도서출판 문학수첩

